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2호 [주제 제25485호] 주제 105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우리 아이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며 이 땅위에 한없이 파사로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정치를 펼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친어머님 사랑에 떠받들리워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됨으로써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강원도위원회 위원장 박정남동지와 야영소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문천시의 경치좋은 바다기슭에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는 강원도의 학생소년들이 누구나 찾아와 야영생활을 마음껏 즐길수 있는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최상의 수준

에서 새로 개건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형성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였으며 개건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강원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끝없는 투쟁을 벌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방대한 개건공사를

도자재의 힘으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영소의 전경을 훑은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건축물들을 바다를 끼고있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파도를 헤가르는 듯배로 형

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핌이 뜨겁게 어려있는 이곳 소년단야영소만 놓고보아도 자식들에게 열가지, 백가지 아낌없이 주고싶은 천부모의 심정으로 나라의 제일 좋은 곳들마다에 아이들의 보금자리들을 일떠세워주시신 위대한 수령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잘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첨단 초소로 달려던 야전차를 세우시고 야영가는 아이들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미술작품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면서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나온 노래구절이치라고 뜨겁게 외우시며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아이들의 얼굴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질세라 마음스신 장군님의 뜻을 언제나 잊지 말고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우리가 지켜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서열람실, 전자도서열람실, 종합지식보급실 등을 돌아보시면서 새 세기 발전하는 교육학적요구와 년령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야영기간이 그대로 폭넓은 지식을 소유하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침실, 로리강의실, 식당의 로리실습실, 주방, 식사실, 생일식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방자제를 가지고 꾸렸는데 손색이 없다고, 아이들이 바다경치를 구경하면서 식사도 하고 제손으로 밥과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본 야영의 나날을 일생토록 추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